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悅親心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勉爾孜孜惜寸陰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老矣無能徒自悔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頭邊歲月苦駸駸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흐르도다.

遺子滿籩金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不如教一經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此言雖淡薄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爲爾告丁寧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존경하는 廣州이씨 18만 중인 여러분!

2024년의 여명이 지고, 찬란한 태양이 희망의 빛을 발하며, 을사년 靑木蛇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연을 상징하는 청목(靑木)의 기운이 더해져, 더욱 조화로운 에너지가 넘치고, 지혜로운 내면에 강한 에너지를 품어, 안정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새해에, 廣州이씨 일가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짙은 어둠을 헤치고, 빛을 향해 나아가셨던 종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혜로운 성찰과 새로운 도전이 강조되는 을사년에는, 꿈을 향해 날갯짓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도약을 시작할 때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셔서, 꿈을 이루는 기쁨과 성공의 감동을 만끽하시길 소원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문중은, 자랑스러운 廣州李의 가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百代之親의 정을 나누며, 화합하는 종회와 종인으로 유지를 받들어 왔습니다. 이에 부응하려고 대종회에서는, 홈페이지를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리뉴얼함으로써, 언제 어디에서든지 모바일을 통해, 대종회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인들이 2세를 출산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두 배가 넘는 종인들이 출산하여, 당초 예산을 훨씬 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횡으로 편집되고, 어려운 한문 용어의 사용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遁村 유고집을 새롭게 해석하고, 가로로 편집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편집 과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종회 본관 건물 및 장안빌딩에 리프트를 설치하여, 연로하신 종인들이 방문할 때 힘들게 층계를 오르내리지 않고,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제반 공사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廣州이씨 일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전과 혁신의 발자취로 이루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백대지친을 향한 원대한 꿈과, 그 꿈을 이를 충분한 역량도 있습니다. 환경과 경쟁, 과거의 틀을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돌파하고 일류의 큰 꿈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시점에, 국가 경제의 침체와 사회 여건의 변동은, 종회 운영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대종회는, 각 지파의 현안 사항과, 단체 및 종인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하고, 종회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대비책으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여, 삼성동 수도빌딩을 재건축하기 위해, 우리의 숙원인 본사업이 꼭 이루어지도록,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현양사업비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파 파조를 비롯한 선현조의 현양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셋째, 한글세대의 종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발간 서적 및 제례 관련 용어 등의 한글화 작업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넷째, 廣州이씨 족보는 대동보가 발간된 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종전 한문 위주의 족보에서 탈피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모바일 시대에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선조의 발자취를 더듬어볼 수 있도록, 인터넷 전자족보 발간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廣州이씨 중흥의 문을 여신 둔촌 선생 탄신 700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廣州이씨의 날과 2027년 둔촌선생 탄신 700주년 축하 행사를, 전 종인들과 더불어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일가 여러분

우리 18만 종인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헤쳐 나갈 때, 어떠한 난관도 장애물이 될 수 없으며, 우리 대종회는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분열은 분열을 낳을 뿐 화합과 돈목은 물론, 선조님의 유훈인 백대지친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를, 해

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처럼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명문거족의 자긍심을 대대손손 이어온, 700년 역사의 빛나는 전통과, 선조님들께서 물려주신 유업과 유산을 확고히 지켜 나가고, 미래 세대에게 더 발전된 문중 역사의 기반을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끝없이 이해하고 인내하며, 문중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廣州이씨 대종회 회장 이 주 영

2025 을사년 신년사

◆ 사인공파종회 회장 이용화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우리 廣李家族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멋진 廣李家族를 만들어 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충희공종회 회장 이경래

존경하는 廣李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희공종회 회장 경래 인사드립니다.

을사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청사(靑巳)의 해이고 육십갑자 중 42번째 해입니다. 청색을 뜻하는 乙과 뱀을 뜻하는 巳가 만나서 푸른 뱀의 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푸른 뱀의 상징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지혜를 뜻한다고 하지요. 2025년은 종친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앙망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廣李 종친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우리 모두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福) 많이 받으세요.

◆ 관찰사공종회 회장 이재석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廣州이씨 일가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대종회와 충희공종회, 관찰사공종회, 10개 지파종회와 각 지파 종회의 모든 小宗中 종회의 발전과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저희 관찰사공종회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전년도와 같이 종회 종친들과의 화목과, 선조님들의 현양사업에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개최한 관찰사공 종인의 날 행사는 매 2년 또는 매 3년 주기로 진행할 예정이고, 관찰사공 화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종원들의 화목과 단결에 일조할 것입니다. 대종회와 방계 지파종회 행사에 적극 동참하여, 전체 종원의 돈목과 종회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18만 廣州이씨 종원 여러분의 을사년 내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광릉부원군파종회 회장 이봉수

존경하는 廣李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릉부원군파종회 회장 봉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을 뒤로하고, 어느덧 2025년 을사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은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찍이 광릉부원군께서는 새해 덕담으로 석복 겸공(惜福 謙恭) 하라고 이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겸소하게 생활해서 복을 오래도록 누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자만(自慢)을 멀리하고 겸공(謙恭 겸손과 공손)하라 하시면서 모든 사물은 성(盛)하면 반듯이 쇠(衰)하게 되어있는 법이다. 평소 절약하고 겸소함이 복을 아끼고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손에게 간곡한 유훈을 남기셨습니다.

존경하는 廣李 종친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우리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福) 많이 지으세요.

◆ 문경공파종회 회장 이경수

문경공파종회 회장 새해 인사드립니다.

2024년 甲辰年 찬란한 여명이 지고, 2025년 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함께한 廣州이씨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廣州이씨 가문의 빛나는 전통과, 명예를 이어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푸른 뱀의 해로 지혜로운 뱀의 기운을 받아, 찬란한 햇살이 대종회를 비롯한, 지파 종회 종친 모두의 앞날에 비추이기를 소망합니다. 가슴 벅찬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고, 廣州이씨 모두의 가정에 새해에는 새로운 꿈과 꿈을 이루기 위한 소망 이루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광천부원군파종회 회장 이성호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국제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의 주변국의 분쟁과, 그리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경기는 계속 침체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모든 일 순조롭게 풀리고, 새로운 각오와 희망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을사년 푸른 뱀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대종회를 비롯한 충희공종회, 관찰사공종회와 10개 지파 종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廣州이씨 모든 종

인과 가정의 평화와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광원군파종회 회장 이석래

지난 한 해 베풀어주신 종인 여러분의 후의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에도 더 큰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좌의정공파종회 회장 이충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廣州이씨 종인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갑진년(甲辰年)을 보내고 이제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흔히 을사년을 '푸른 뱀의 해' 라고 합니다. 이는 을(乙)이 푸른색과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음양오행(陰陽五行)에서 천간(天干) 중 하나인 을(乙)은 나무(木)의 기운을 의미하고, 동양의 오행(五行)에서 푸른색은 목(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을사년은, 푸른색은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을사년의 에너지는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뱀은 지혜와 비밀스러운 에너지를 상징하기에 에너지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요구할 것이므로 매사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깊이 고민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지금 광주이씨 종인은 물론 많은 국민이 시련의 시기를 맞고 있지만, 을사년 새해에는 푸른 뱀띠의 특성대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을(乙)의 기운이 사람들 간 조화를 이루고 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을 피하고, 조화롭게 소통하는 한 해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해가는 2025년이 될 것이라 굳게 믿으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 참판공파종회 회장 이선래

廣州이씨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웠던 甲辰年 한 해가 지나고 푸른 뱀의 해 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뱀은 지혜와 변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금년 한 해는 뱀의 기운을 듬뿍 받아,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가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송구영신의 계절. 종친끼리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며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으로, 종회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종친들은 廣州이씨의 번영을 위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百代之親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내 주신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종친 여러분에게 조상님의 음덕과 가정내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좌통례공파종회 회장 이택수

지난해 베풀어주신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 희망으로 맞이하는 乙巳년에는 家庭에 萬福이 가득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문숙공파종회 회장 이용중

"근하신년"
을사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사의 지혜와 행운을 듬뿍 받아 작은 행복들이 큰 기쁨이 되는 한 해 되시기 바라며, 날마다 새롭게

모든 날 들이 건강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목사공파종회 회장 이춘신

혼란한 시국과 불황의 늪에 빠져드는 경제 침체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을 안고,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목사공파종회는 지난 40여년 깊은 갈등의 불화를 불식시킬 목사공파 발전, 화합 토론회를 개최하여, 화합의 불씨를 피워 올리는 후손 간 화합을 이끌어 내, 목사공파 선조님들을 현양하는 송조돈목의 정신적 가치를 한껏 드높일 계획입니다. 목사공파의 화합은 목사공파종회의 재정난에서 비롯된 종회 침체를 극복하여, 정상화시키는 중요한 바탕이며, 발전의 큰 동력입니다. 현재 목사공파종회는 종회 재정난으로 선조 현양사업과 보학을 통한 선조 조명 사업, 그리고 소모임을 통한 종원 친목 활성화 사업 등 종회의 핵심적인 중요 사업에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공파종회는 이러한 현안들에 대하여 목사공파 후손 대화합 조치로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사공파 후손들이 충무공의 정신으로, 죽을 각오로 서로 양보하고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화합의 구체적인 요건인 경제적인 협상은 현실적인 사안이라 조금하게 서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보 없이 또다시 자신들만의 욕구에 매몰될 경우, 화합은 불가능하고 목사공파종회는 다시 또 나락의 침체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공파 화합의 목표는 종회 정상화입니다. 종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목사공파의 미래는 없습니다. 종원 모두의 관심 속에서 목사공 후손의 화합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 목사공파종회의 의미를 담은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성어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슬이 쌓여 바다를 이룬다"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이 있을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서,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새해 종원님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덕내 평안과 행복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 광문회 회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새해 인사드립니다.
다사 다난했던 甲辰年 용의 해를 보내고, 새해는 지혜와 신중함, 새로운 도약의 에너지를 발하는 푸른 뱀의 해 乙巳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廣李 일가 여러분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도 광문회(廣文會)는 "廣李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라는 기치로, 대종회와 각계의 종인들과 힘을 합하여, 선조님들의 발자취와 유훈을 받들고, 명문거족으로서의 긍지와, 대동단결하여 미래 세대의 廣李를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재경화수회 산악회장 이종철

2024년 갑진년이 저물고 靑木의 해 을사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산악회도 벌써 26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광이 산악회를 격려해 주시고 성원을 해주신 덕분에 광이 산악회는 나날이 발전하고 번창하고 있습니다. 을사년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광이 산악회는 광주이씨 남녀노소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을사년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히 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대중회 국가유산보존 유공기관 표창 수상

광주이씨 대중회는 성남시로부터 「성남시 국가유산보존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본 상은 금 년 처음 시행하는 표창으로, 성남문화원이 추천하고 성남시장이 수여하는 표창패이다.

성남시에서는 아래 사항을 표창패 수상 공적으로 뽑았다.

❶ 2008년 5월 26일 경기도기념물 제219호로 지정된 하대원동 소재 둔촌 이집 추모재 및 묘역 관리에 기여함.

❷ 2006년 3월 27일 성남시 향토유산 제7호로 지정된 하대원동 일대 광주이씨 둔촌 이집 선생



성남시장 표창패

후손들의 조선 전기묘역 관리에 기여함.

❸ 2016년 1회를 시작으로 현재 9회까지 성남의

큰 어른으로 추앙받고 있는 둔촌 이집 선생의 효행과 충절, 선비정신을 기리는 둔촌문화제를 개최.

❹ 한·중 수교를 기념, 한국 성남시와 중국 심양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여 2006년부터 2024년 현재 제19회째 이어오면서 우리말 보존과 전승을 위한 둔촌중국백일장을 개최 및 후원.

대중회는 제1회 본상 수상을 기회로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하여, 선현조의 발자취를 발굴 보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선현양 사업을 적극 확대 시행하고자 한다. 종인 여러분의 축하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중회 단신

■ 전국청장년연합회 간담회



전국청장년연합회 간담회

2024년 12월 2일 11시 대중회 회의실에서, 전국청장년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내방하여, 제27차 전국청장년연합대회 개최 관련 회의를 하였다. 이날 청장년연합회측에서는 연합회 재선 회장, 보성청장년회 채만 회장, 옹호자문위원(양진재공종회 회장), 용일 자문위원, 흥수 서울청장년회장이 방문하여, 청장년연합회가 금년까지는 청장년 회원 및 가족동반으로 개최하고, 이에 따른 예산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대중회는 당초 2025년에는 광주이씨의 날 행사를 개최 예정이었으므로, 추후 제반 여건들을 감안 검토 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 지파총회장 송년회



지파총회장 송년회

12월 19일 대중회 사무실에서 송년회를 겸한 지파 총회장 자문회의가 있었다. 특별한 사안이 없었기에 덕담을 나누고 점심으로 송년회를 대신하였다.

■ 창녕 운곡서원지 탐방

12월 11일 대중회 상근 임원들은 경남 창녕군 성산면 운봉리 운곡서원지(雲谷書院址)를 찾아 금년 수해보수공사 상황을 둘러보고, 사인공파총회 집행부로부터 향후 보존관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화를 나누었다.

이어 일행은 경운재(景雲齋)와 창녕읍내 사무실을 찾아 사당에 참배하였다. 이날 사인공파총회에서 옹화 회장, 옹균 전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등 여러 종인들이 함께 하였다.



운곡서원지를 돌아보고 설명을 듣는 대중회 임원



정화사업을 마친 운곡서원지

■ 성남 선대 묘역 폭설 피해 조사



성남 선대 묘역 폭설로 인해 부러진 나무

12월 3일 성남지역 폭설로 인한 소나무 피해 조사를 실시한 바 약 40여 그루의 소나무가 쓰러지고 가지가 부러지는 등 많은 피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폭설에 대비한 관리를 사전에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 출산장려금 지급

2024년도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급제도가 12월 31일 현재 당초 50명의 두 배가 되는 100명으로 집계되었다. 각 지파별 신청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사인공파	1명
광릉부원군파	15명
문경공파	24명
광천부원군파	6명
광원군파	25명
좌의정공파	4명
참판공파	2명
좌통례공파	12명
문숙공파	7명
목사공파	4명

2025년도부터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각 지파에서는 이점 유의하고, 제 증명과 족보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이씨 대종회 2025년도 제례봉행 일정표

- 봉행일자 순

歲一祀					
구 분	일 자(음력)	2025년(양력)	위 치	연락처	
동고상공(휘 준경)	한식제향	4월 5일(토)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로 308-41	02-6291-1100	
문경공(휘 극감)	9월 9일	10월 29일(수)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 90-1 (수회길 97)	02-6291-1100	
문숙공(휘 지강)	11월 둘째주 일요일	11월 9일(일)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 67-1	010-2582-6928	
시조 판서공(휘 당)	10월 2일	11월 21일(금)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121 (광릉 1길 23)	02-735-1720	
시조비(인화이씨)	10월 4일	11월 23일(일)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산 24-1 (하남대로 888)		
둔촌선생(휘 집)	10월 5일(오전)	11월 24일(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3-11		
청백리공(휘 지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 3-1		
사인공(휘 장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3-11				
대사간공(휘 극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8		02-2212-5227		
관찰사공(휘 예손)			02-595-5656		
광원군(휘 극돈)			010-8242-1910		
충화공(휘 인손)	10월 6일		11월 25일(화)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능서공원길 156-26	02-472-8209
광천부원군(휘 극증)	10월 7일	11월 26일(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34-1	02-2212-5227	
참판공(휘 극기)	10월 8일	11월 27일(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 33	02-2212-5227	
좌통례공(휘 극건)	10월 10일	11월 29일(토)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산 55-1	010-5203-3427	
목사공(휘 지유)	음 10월 7일 주간 토요일	11월 29일(토)	경기도 하남시 향동(고골) 산 64	010-6338-6547	
십운과공(휘 자령)	시조비 세일사후 첫 일요일	11월 30일(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97	02-3426-1096	
광릉부원군(휘 극배)	10월 12일	12월 1일(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산 12-4		
不遷位祭					
구 분	일 자(음력)	2025년(양력)	위 치	연락처	
충민공 (휘 상안)	1월 21일	2월 18일(화)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33-10 (3층) (충민사)	010-3742-4080	
광원군 (휘 극돈)	2월 28일	3월 27일(목)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07-2 (매송헌)	02-595-5656	
광천부원군 (휘 극증)	3월 25일	4월 22일(화)	충북 괴산군 불정면 탑촌로 224-3 (광천사)	02-472-8209	
좌의정공 (휘 극균)	4월 14일	5월 11일(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산4-7 (송모재)	010-8350-9777	
장렬공 (휘 윤덕)	4월 14일	5월 11일(일)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4길 13 (5층, 송모재)	02-3426-1096	
충민공 (휘 시무)	5월 11일	6월 6일(금)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89 (광릉재)	010-8223-2506	
경무공 (휘 우항)	5월 20일	6월 15일(일)	하남시 하남대로 784번 안길 (경무사)	02-3426-1096	
광릉부원군 (휘 극배)	6월 2일	6월 26일(목)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89 (광릉재)	02-735-1720	
둔촌선생 (휘 집)	6월 6일	6월 30일(월)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3-11 (추모재)	010-8223-2506	
감호당선생 (휘 도장)	6월 22일	7월 16일(수)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2길 6-5 (감호정사)	010-4810-7410	
묵헌공 (휘 만운)	6월 25일	7월 19일(토)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3길 13-5 (묵헌종택)	02-6291-1100	
동고상공 (휘 준경)	7월 7일	8월 29일(금)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산 35-1 (충정사)	02-3426-1096	
충화공 (휘 인손)	7월 13일	9월 4일(목)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능서공원길 156-26 (송모재)	02-735-1720	
청백리공 (휘 지직)	7월 20일	9월 11일(목)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3-11 (추모재)	02-6291-1100	
문경공 (휘 극감)	7월 27일	9월 18일(목)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연지길 47-6 (문효사)		
광양군 (휘 세좌)					
정효공 (휘 연경)					
충장공 (휘 광악)					
석담선생 (휘 윤우)	8월 9일	9월 30일(화)	경북 칠곡군 지천면 상지3길 17 (석담종택)	010-4315-3426	
정헌공 (휘 윤경)	8월 10일	10월 1일(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산 30-4	010-6807-3712	
문화공 (휘 정립)	8월 12일	10월 3일(금)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89 (광릉재)	02-2213-5316	
한음상공 (휘 덕형)	매년 한글날	10월 9일(목)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로 476-4 (쌍송재)	010-2655-4811	
문익공 (휘 원정)	8월 21일	10월 12일(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동산 2길 11 (귀암종택)	010-3084-8655	
도한공 (휘 원록)	12월 21일	26년 2월 8(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 3길 21-12 (박곡종택)		
其他行事					
행 사 명	일 자		위 치	연락처	
정암(중훈선생) 추모식	삼일절(3월 1일)	삼일절(3월1일)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현충원)	010-6338-6547	
애국동산(6위) 추모식	삼일절, 광복절	삼일절, 광복절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산 63-4 (애국동산)	010-9241-7026	
보춘서원 춘향제	2월 24일	3월 23일(일)	전남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407-1	02-6291-1100	
종묘 추향대제		11월 2일(토)	서울시 종로구 종로 157 (종묘 정전)		

지파종회 소식

광릉부원군파종회 소식

■ 광릉부원군파종회 화수회 갑진년 송년회 개최

광릉부원군파종회 화수회(회장 종길)에서는 2024년도 갑진년 송년회를 12월 20일(금) 종회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송년회에는 화수회 종길 회장을 비롯해서 4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날 도승지공계 광명종회 종형 회장, 광주 대쌍종회 주신 회장, 부제학공계 종훈 회장, 그리고 백래 前 경기도의회 의원이 자리를 함께하였고, 내빈으로 좌의정공파 시하 총무 이사와 주석 현종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종봉 총무의 진행



으로 참석자 소개, 개회 선언, 국민의례, 화수회장 인사, 종회 봉수 회장 송년사, 만재 부회장, 대종회 용두 상임 부회장의 송년회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서 문수 광릉부원군파종회 총무의 종회 소식과 기타 소식 순으로 행사가 이어졌다.

종길 회장은 송년사에서 갑진년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지내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하고 새

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석복(惜福)하시기 바란다고 인사하였다. 이 밖에도 종형 회장, 종훈 회장, 주신 회장, 종민 고문, 백래 경기 前 도의원, 이연 공종회 주돈 주손, 포천 이곡 종회 윤래, 근재 시인 순으로 인사가 있었다. 1부 행사를 마친 회원들은 자리를 식당(황금오리 백숙집)으로 옮겨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송조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종길 회장, 광명종회 곤수 前 회장, 종회 봉수 회장 순으로 건강과 행복 그리고 화수회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 삼창이 고요하던 식당에 울려 퍼졌다. 한편 이날 경기도 광주 연곡리 소재에 사는 종수 회원이 밤(栗)농사를 수확하여 많은 양의 밤을 광릉부원군 파조님께 진상하고 남은 밤은 회원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전달하였다. 종수 회원에게 감사함과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

■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총재 이주영) 후원금 기탁

광릉부원군파종회 산하 각 공계에서는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에 후원금을 기탁하였다. 세계적인 이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자랑스러운 광주인(廣州人)이 총재를 맡고 있다.

후원금 기탁자는 경기 광명종회(회장 종형, 총무 양수) 김포 이연공계종중(회장 주훈, 총무 영수), 경기 광주 대쌍종회(회장 주신), 부제학공계 안성종회(회장 종훈, 총무 만재), 참의공계 대전 해주목사공종회(회장 익재, 총무 용복), 명일 아구탕집(사장 배상석), 충회공종회 경래 회장, 광릉부원군

파종회 승재 재무이사, 문수 총무이사 등이다. 우리 광릉부원군파종회 각 공계 종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성어린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각 공계 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 세계도덕재무장이란 (Moral - Re-Armament)

1938년 미국인 부크맨 박사가 영국 런던에서 제창한 것으로 인류 문명이 물질적인 힘보다 정신적 도덕적 힘과 양심적이고 인간적인 힘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운동이다. 창시자 부크맨 박사는 거짓과 허위 위선 퇴폐와 향락, 음란, 이기와 탐욕 그리고 무관심과 증오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정상적인 생활로 이끌어 새로운(new) 변화와 새로운(new)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국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것이라는 신념 하에 이 기구를 창설하였다.

한편 한국본부 총재는 광주이씨 대종회 주영 회장이며 2024년 2월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각 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이 있었다. 우리 광주인이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명성이 있는 단체에 총재로 선임된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며 영광이다. 또한 낙오자 없이 새로운 세계와 미래로 나가는 것은 지구인의 희망이자 꿈이다. 이 단체에는 우리 광릉부원군파종회 많은 종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특히 만재 부회장은 1965년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광릉부원군파종회 도승지공계 수업공종회(회장 문수)에서는 2024년 12월 19일 연말을 맞이하여 서울 사회복지 나눔 행사에 참석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소액의 기부금(私費)을 전달하였다. 이날 모금회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주민센터(동장 박경표)에서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한



광릉부원군파종회 불우이웃돕기 행사

많은 자원봉사자와 지역 내 인사들이 나눔의 행사에 함께하였다. 선행은 많고 적음을 떠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해 본다. 한편 당일 더욱 뜻이 깊었던 것은 강동구 지역이 둔촌 선생께서 숨어 지내던 곳으로 이 날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자되어 후손으로서 긍지를 갖게 되었고,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교차한 하루였다.

- 광릉부원군파종회 총무이사 문수記

기타 소식

■ 재경화수회 송년회개최

광주이씨 재경화수회(회장 충교)에서는 2024년 12월 16일 17시 30분 대종회 회의실에서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을 마감하는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대종회 주영 회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전원이 참석하였고 대종회 전 재진회장, 충회공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외 화수회원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회를 함께하며 새해를 앞두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나아가자는 주



재경화수회 송년회

영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충교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국민의례, 충교 회장

인사, 대종회 주영 회장 인사, 회장단 인사, 떡케익 커팅과 샴페인으로 축포를 터트렸다. 이어서 마련된 뷔페 음식으로 저녁을 대신하고 묵은 정을 씻고 새해를 설계하는 담소들을 나누었다. 이날 충교 회장 20만원, 대종회 용두 부회장 10만원, 충회공종회 경래 회장 10만원,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10만원,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10만원, 문숙공종회 용중 회장 10만원, 8계 무환 간사 10만원 등 많은 회원들께서 격려금을 찬조하였다.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린다

- 재경화수회 총무 시하記

■ 재경화수회 산악회 송년회 개최

2024년 12월 22일(일) 12시 광주이씨 재경화수회 산악회(회장 종철)는 명일동 소재 “명일 아구 켜” 식당에서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을 보내는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대종회 용두 상임부회장을 비롯하여 산악회 회원, 며느리 회원 등이 참석하였다. 종덕 산악대장의 진행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 영령에 대한 묵념, 종철 회장 인사, 원로 회



원 소개와 한마디 덕담을 나누는 시간도 있었다. 본 식이 끝난 후 잘 차려진 아구 수육에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였다. 올해로 26회째가 되는 산악회를 잘 이끌고 있는 현 집행부에 앞으로도 잘 이끌어주길 바라는 기대와 노력에 회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광주이씨이면

누구든 회원이 될 수 있고 乙巳年 2025년에는 회원도 배가되고 프로그램도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재경화수회 총고 회장,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께서 격려금을 지원해 주셨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참고로 2025년 새해 1월에는 설 명절 겹쳐 있어서 부득히 휴산함을 알려 드립니다.

— 재경화수회 산악회 회장 종철 기

■ 좌통례공파 부사공종회 총회 개최



좌통례공파 부사공종회 총회

좌통례공파 부사공종회는 2024. 12. 28(토)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광의회관 회의실에서 2024년도 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주홍 회장을 비롯하여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이날은 여러 종인들이 새로 참석하여 종인 배가운동에 동참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식순에 의거 개회사, 성원보고,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조상님에 대한 묵념, 참석 종인 소개, 회장 인사, 경과보고, 회계보고, 기타 안건의 순으로 진

행되었다. 회의를 마친 종인들은 인근 배비장 숯불 갈비 식당으로 이동하여 반주와 양념갈비로 오찬을 함께하며 종인 간 덕담을 나누며 정을 쌓았다. 특히 앞으로 종인들은 하나같이 뭉치고 협력하여 난세를 헤쳐 나가는 지혜와 단결력을 보여주자며 브라보를 외쳤다.

또한 이날 새로 참석한 종인들은 그동안 종중 행사에 소극적이었으나 다음부터는 자녀들을 동반하여 적극 참여토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좌통례공파 부사공종회 총무 종우 기

■ 경북 의성의 입향조 세일사 및 송년회 다녀오다

경북 의성군 금성면 초전 2리(성작골) 입향조이신 진사공(諱 必信)은 문경공(諱 克堪)의 6대손으로 정헌공(正獻公) 송덕재(諱 潤慶)의 증손자이고 천안군수공(諱 士栗)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성작골은 공의 입향이후 1600년대부터 지금까지 400여 년 집성촌으로 이어오면서 많은 인재가 육성되고 있는 곳이다.

세일사는 매년 음력 10월 15일 다섯 분의 선조님을 봉행하는데 올해는 우천관계로 종석 현종 덕에서 묘제가 아닌 지방 제사로 예를 올렸다. 음력 10월 30일은 김장철이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여 명의 부부 동반 종인들이 모여 문종의 경과보고와 의성군 명소인 마늘떡인소 덕향에서 반주

를 하면서 한 분 한 분 덕담으로 종친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뜻깊은 돈목의 시간이 되었다.

이곳 집성촌의 향종회장은 종태 현종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온 철도청에서 정년 퇴임한 이후 종회 종사를 맡아 오셨는데, 현재 85세에 있으면서도 열성적으로 선대조 현향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종태 현종은 박학다식하면서도 특유의 친화력으로 주변의 제 성씨 가문들은 물론, 안동의 유림들과 교류를 하시며 우리 광주이가의 훌륭한 선현들을 적극 홍보하고, 후배들을 양성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종원들을 걱정도 하고, 문종의 묘역관리, 재산관리 등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적극 헌신하고 계신다.

이날은 문경공종회 종덕 재무이사가 문중어른들의 분정 추천으로 초헌을 맡아 예를 올렸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종덕 재무는 대종회와 문경공



의성집성촌 세일사 마치고

파종회 등 많은 소식을 전달하고, 특히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홍보하여, 문중 종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대종회 달력을 받아 든 종인들은 많은 얘기를 끝으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환한 웃음과 함께 내년에도 꼭 다시 만나기를 다짐하였다.

— 송덕재 15대손 종덕 기

■ 광주이씨 독립유공자 유족회 4분기 정기회의 개최

독립유공자 유족회(회장 용위)는 12월 14일(토) 11시 대종회 회의실에서 4분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용위 회장을 비롯하여 제주의 양재, 울산의 남석, 대전의 철민 등 지방회원과 서울 경기지역 회원들이 참석하여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영령에 대한 묵념, 회장 인사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내용은 2024년도 결산보고와 2025년도 예산(추정)과 추진업무 및 기타 토론이었다.

이날 주요 회의 내용은 ① 분기별 집행부 회의와 정기회의 개최 ② 유적지 탐방 및 대전현충원 안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의

장자 묘역조사(16인) ③ 광주이씨회보 유공자 홍보(13인) ④ 3.1절 행사 기획(종훈 선생 추모행사) 및 광주시 3.1절 행사 참석 추모 ⑤ 대종회 간담회 개최(대종회 협조 충분히 전달) ⑥ 광주이씨회보 전원 구독 신청 ⑦ 독립유공자 도록집(가칭)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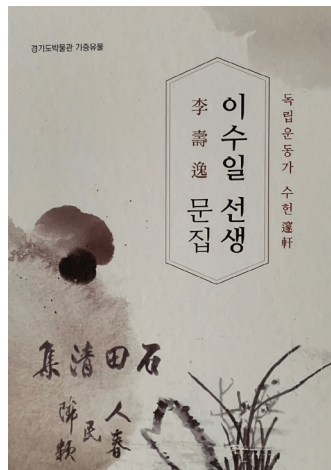
찬 및 예산(추정) 2025년도 예산 반영 등 토의 토론 하였다.

대전의 철민 회원이 준비해 온 대전의 명품 성심당 빵을 먹으면서 점심을 잇은 채 계속된 회의에서, 회원들은 돈목(敦睦)을 느끼며 많은 대화를 하였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어부뎡” 생선구이정식에 반주를 곁들이며, 화기애애(和氣靄靄)한 시간을 마쳤다. 간식으로 빵을 준비해 준 철민 회원과 점심을 협찬한 수구 회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후식으로는 전통찜집 “귀천(歸天)”에서 노랫말처럼 “김이 나는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아서” 담소(談笑)를 한 후, 2025년에도 유족회의 발전과 회원님의 건강을 기원하였다.

— 유족회 총무 호순 기

독립지사 이수일(李壽逸) 선생

先生은 이름이 수일(壽逸)이고, 자는 숭경(崇卿)이며 호는 수현(壽軒)이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명으로 수기(壽麒), 수일(壽逸), 숭향(崇卿) 등이 있다. 둔촌선생(遁村先生) 집(諱集)의 후예이다. 아버지 진환공(李晉煥公)과 어머니 순천박씨(順天朴氏)의 둘째 아들로, 왜관을 석전리 관기마을에서 1885년 정월 29일(음)에 태어났다. 12대조 석담선생(石潭先生) 윤우(諱潤雨)는 공조참의를 지낸 한강 정구의 수제자이며, 11대조 낙촌공(洛村公) 도장(諱道長)은 응교를 지냈고 좌찬성으로 추증되었다. 10대조 귀암공(歸巖公) 원정(諱元禎)은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영의정으로 추증되었으며 시호(諡號)는 문익(文翼)이다. 9대조 낙해공(洛海公) 이한명(諱漢命)은 교리(校理)를 지냈다. 이 분들은 당대에 학덕(學德)이 높고 청렴강직(清廉強直)한 최고의 학자에게 맡겨지는 사권(史權)을 행사하는 한림직(翰林職)을 4대에 걸쳐 재직하였다. 그리고 5대조 묵헌공(默軒公) 만운(諱萬運)은 지평, 안의현감, 정언을 역임하였고 문장과 덕망이 뛰어나고 높아 유장(儒匠)이 되었으며 퇴계, 한강, 문익공을 잇는 정통 성리 학자이다.



이수일 지사 평전

先生은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유학자로서 대가가 되었으며, 남다른 선비정신을 함양해 불의와 부정과 타협하지 않았다. 1910년 경술국치로 조선이 일제에 병탄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국권 회복을 위한 우국충정의 일념으로 파리장서 사건을 주도했던 면우(旃宇) 곽종석(郭鍾錫)과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영남유림단(嶺南儒林團)의 일원으로 청도의 이정희(李庭禧) 지사, 경주의 박상진(朴商鎭) 열사와 함께 지하 독립단체를 만들어 항일운동에 앞장서기로 결의하고

항일투쟁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 당시 영남유림단은 3.1운동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파리장서사건”이다. 先生도 이에 서명했으나 김창숙 선생이 젊은 인재들은 장래에 큰 책무를 하여야 한다며 서명자 명단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1925년 9월 제1차 유림단선거가 실패로 돌아가자 심산 김창숙을 중심으로 다시 “신건동맹단”을 결성하자 先生도 일원이 되어 족제(族弟)인 이수택(李壽澤) 열사가 활약하는 의열단(義烈團)을 지원하고, 요원들을 피신시키는 연락책 임무를 수행했고, 군자금 모금책이 되어 자발적인 헌금도 받았지만, 친일 부호들로부터 강제로 모금하기도 했다. 1926년 2월에 유림단원들이 대대적으로 검거되기 시작하여 동지 4백여 명이 체포되는 제2차 유림단 사건이 발생하였다. 1927년 5월에 심산 김창숙이 상해에서 체포되어 국

내로 압송되자 先生은 성주(星州)에 피신해 있었고 7월26일에는 산후병으로 위독한 부인(풍양조씨)을 만나고자 자택에 잠시 잠입했다가 잡복해 있던 칠곡경찰서(漆谷警察署) 조선인 형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체포되어, 대구지방법판소에서 1년 3개월의 옥고(獄苦)를 치렀다. 부인은 先生이 체포된 지 3일 만에 사망하였고, 사돈 이정희 지사는 투옥되었으며, 인척 관계인 박상진 열사는 형장에서 순국하고, 족제(族弟) 이수택(李壽澤)은 감옥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석방된 후 사망하였다. 先生은 통한(痛恨)을 가슴에 안고 “내 나라 조선(朝鮮)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1945년 광복 후 先生은 향리에서 후학 양성과 학문 증진에 전력을 다하였고, 심산 김창숙선생이 결성한 전국유도회(全國儒道會)의 영남지역대표를 맡아 영남유림단 재건에 지대한 공로를 세웠다. 先生은 영남유림의 추증을 받아 구미 동락서원, 영주 소서서원, 선산 금오서원 등 영남 일대의 서원과 서당, 단소(壇所)의 원장(院長), 당장(堂長), 도유사(都有司), 도집례(都執禮)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저술을 하였다. 선생은 한학의 시, 서예에 조예가 깊었는데 당대 영남지역의 명필가이며 문필을 겸비한 대학자로서 유림의 추앙을 받았는데 1966년 4월 8일 향년 82세를 일기로 영면(永眠)하였다.

뒤늦게나마 정부에서 그 공로가 높이 추인되어, 2005년 8월 15일 건국포장이 추서되었으며, 대전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으로 천장(遷葬)하였다. 그리고 先生의 숭고한 구국정신과 공적을 헌창하고, 위훈을 기리는 향인들의 충정에 부응하기 위하여 낙동강변 애국동산(愛國東山)에 추모비(追慕碑)를 건립하였다. 先生이 남긴 고서와 고문서 등 2,600여 점은 2014년 선생의 손자인 이택규, 이택기, 이혜숙이 경기도박물관에 기증하였고, 경기도 박물관은 문서에 대한 정리, 등록, 해제 작업을 수년간 진행하여 문집을 발간하였다. 이 문집은 기증된 문서와, 유족들이 소장한 문서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문서를 탈초, 번역한 결과물이다. 이 문집을 통해 독립운동가 이수일 선생의 태산처럼 웅장한 모습과 북두성처럼 반짝이던 내면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란다.

— 외손자 홍원조 근지



이수일 지사 추모비

혜원 신윤복은 광주이씨의 외손

1. 혜원 신윤복의 계보를 입증하다.

나는 1993년에 조선 후기의 대표적 화원화가 혜원(惠園) 신윤복(申潤福, 1758년경~1814년 이후)이 고령신씨 신말주(申末舟, 歸來亭, 1429~1503)의 후손임을 밝혀내어 그 사실을 당시의 월간 『미술세계』 11월호와 12월호에 기고하였다. 나의 이 발표는 우리나라의 회화사학계에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았다.

내가 혜원을 처음 연구하던 1990년대 초에 혜원 신윤복에 관하여 알려진 사실은 위창 오세창의 1928년에 계명구락부를 통하여 내놓은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에 기록한 스물여섯 자가 전부였다. “申潤福 / 字笠夫° 號惠園° 高靈人° 僉使漢杵子° 畫員° 官僉使° 善風俗畫° (畫士譜畧)”. 즉 자료 부

족으로 인하여 혜원의 삶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전혀 없었다. 그런 그의 계대를 정확히 입증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규명한 혜원의 계대는 1804년에 발행한 고령신씨 가문의 한성보(漢城譜, 甲子譜) 6책이 2017년에 대구의 금요옥션에서 출품되어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거기에 혜원 부친 일재 신한평까지 수단되어 있어 필자가 규명한 혜원 계대의 정확성이 입증되었다.

2. 혜원 신윤복의 고향을 입증하다.

혜원의 계보를 밝혀낸 지 31년째인 금년에, 나는 혜원의 고향이 옛 경기도 양주군 연서면 구산리(지금의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이라는 사실을 완벽하

게 입증하였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일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과 ‘고령신씨종중회’ 에서 해원 신윤복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힘을 보탰다. 이번 학술대회의 명칭은 “해원의 고향, 은평 - 은평의 화원, 신윤복” 으로서 학술대회장소는 ‘이호철 북 콘서트 홀’ 이었다. 이 학술대회에서 해원 신윤복 가문의 선산은 지금의 구산동 ‘거북골근린공원’ 언저리에 있었으나, 여러 이유로 하여 실전하였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해원은 고령신씨 시조 신성용(申成用)의 19세손이다. 그리고 신말주의 11세손이다. 그런데 신말주의 손자가 신공섭(申公涉, 安峽公, 시조로부터 10세, 1481~1521)이고, 그의 소실(小室)이 광주이씨부인(廣州李氏婦人, 1484~1554)으로서 남편 신공섭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리 선산에 묻혔지만, 광주이씨부인은 소실이므로 구산리에 묻혔다. 신공섭의 부인이 광주이씨이므로 고령신씨 안협공파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그 가묘를 신공섭 묘소 옆에 만들면서 “貞夫人廣州李氏之壇” 라는 비석을 세운다.

3. 해원의 9대 조모가 현명(賢明)한 광주이씨부인이다.

즉 해원 신윤복의 9대 조모(10세 조모)가 광주이씨였다. 이 광주이씨부인이 일각에서는 홍주목사를 지낸 이효독(李孝篤, 1451~1500)의 딸로 알려졌는데, 광주이씨족보에는 이효독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용인이씨(龍仁李氏) 19세로 이효독이 있다는 사실이다. 왜? 이런 착오가 생겼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원의 9대 조모는 광주이씨가 맞다. 그러나 그 부친의 이름이 이효독(李孝篤)인지 이효천(李孝薦)인지는 고령신씨 고 족보에는 분명한 기록이 없다. 1804년 목판본으로 발행한 『고령신씨 한성보』에는 소실의 광주이씨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해원의 9대 조모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790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 필사본 『고령신씨보첩』이다. 그 필사본에 신공섭의 소실로 “配廣州李氏父洪州牧使孝〇” 이라 되어 있다. 이것을 분석하여 보면 해원의 9대 조모는 광주이씨부인이 맞다. 그러나 광주이씨부인의 아버지가 용인이씨 ‘이효독’ 은 아니다. 광주이씨에 동명이인으로서의 ‘이효독’ 이 있거나, 유사한 이름 ‘이효〇’ 또는 ‘이효천’ 이 있었다. 후대에 광주이씨부인을 기록할 때 아버지가 홍주목사를 지낸 ‘이효독’ 으로 부풀려 과시하기 위하여 광주이씨부인 아버지의 관력(官歷)을 홍주목사라고 기록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금의 혼동이 발행하였다. 고령신씨가 해방 전에 편찬한 주요 족보는 아래와 같다.

①1578년, 초간보(어성보), 목판본, 3권 2책. : 고령신씨는 적서의 차별이 심하여, 임란 전에 출간한 초간보이면서도 이례적으로 서손은 전혀 수록하지 않았음. 따라서 해원 직계로는 적손(嫡孫)인 9대조 신공섭(안협공)까지만 수록.

②1753년, 진주보(晉州譜), 목판본, 6책. : 진주보에도 서손은 수록하지 않았음.

③정조 말(1790년경), 필사본, 가승, 1책. : 안협공 신공섭(申公涉)의 소실로 광주이씨 이효〇(李孝〇)의 딸이 기록되어 있음. 광주이씨 부인은 신수진(申守眞, 또는 申狩眞, 申漢)을 낳았음. 광주이씨부인 묘소는 양주 연서 구산리에 소재한 것으로 기록. 해원 직계로는 14세 신극해까지 수록.

④1804년, 갑자 한성보, 목활자본, 9책. : 서자들을 대거 수록하여 만든 족보. 해원의 부친 신한평까지 수록. 해원은 빠져 있음. 이 갑자보가 안협공 서손들이 나온 첫 족보로서 다른 족보들에 비하여 비교적 정확함.

⑤1850년, 목정보, 신윤모 편, 21책, 목활자본. : 청주에서 만든 족보로서 적서 차별을 크게 반영. 이 족보를 만들면서, 1804년 갑자보가 서손들이 많

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훼손시킴. (1894년 갑오경장으로 신분제가 무너짐. 갑오경장 이후에는 서손들도 족보에 수록하면서 적손으로 입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⑥1898년, 유동보. → 신헌구 편찬, 26책, 목활자본. : 신한평 계대가 빠져 있고, 신공섭의 광주이씨부인의 후손 일부를 적손의 후손으로 입보하고 있음.

⑦1924년, 병암보. → 신승구 편찬, 34책, 목활자본. : 신한평 계대가 빠져 있고, 신공섭의 광주이씨부인의 후손 일부를 적손의 후손으로 입보하고 있음.

해원 신윤복의 9대 조모가 기록된 고보는 위의 족보 가운데 ③정조 말(1790년경), 필사본, 가승, 1책이 유일하다. 그리고 해원이 속한 안협공 종친회에서는 해원의 9대 조모가 광주이씨이고, 신전한 묘소 앞에 “광주이씨지묘” 라 기록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해원의 9대 조모의 아버지에 관하여는 광주이씨 족보에 나오지 않는다. 광주이씨부인은 1484년에 태어나 1554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로서는 71세로 장수한 것이다. 그가 사망한 1554년은 광주이씨 가문의 동고(東阜) 선조가 초간보를 편찬하던 1562년 이전이다. 나는 해원의 9대 조모 광주이씨의 아버지는 용인이씨 이효독이 아니라, 아마도 둔촌 선조 이전에 갈라져 나간 광주이씨의 한 지파의 후손으로 판단한다. 그 자료가 나왔으면 한다.

4. 광주이씨부인의 후손들은 번영하였다.

신공섭의 소실 광주이씨부인은 아들 하나를 낳았다. 신수진(申守眞, 또는 申狩眞)으로 기록되어 있다. 후대의 1804년 한성보에 신수진을 신공섭의 적자로 올리면서 신진(申眞)으로 적고 있다. 신진은 후대에 만든 이름이고 본명은 신수진이다. 그런데 1790년대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필사본 족보에 수록되어 있던 해원의 9대 조모는 광주이씨는 사라진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광주이씨부인의 자손들은 필자가 확인한 것만 해도 32인의 역관(譯官)과 10명의 의관(醫官), 그리고 소수의 율관(律官)과 운관(雲觀)을 배출한다. 요즘 말로 기술직 공무원으로 후손들이 크게 활약한 것이다. 이를 가리켜 고령신씨 안협공 문중에서는 “광주이씨부인이 후손들의 길을 바로잡아 교육한 데 있다” 라고 본다. 이들 가운데 역관의 주요한 일은 사신들의 통역이었고 중국으로 가는 사신의 일행에는 보따리 장사꾼들이 끼어들었으며, 자연히 역관들은 통역관의 역할 이외에 보따리 장사꾼들의 구매 조정자 역할도 하였다. 즉, 조선시대의 역관들은 중국의 서화나 골동 서적 기타 상품 등을 국내로 유입해 들이는 역할도 하였다. 그러한 분위기의 영향으로 해원 신윤복이나 그의 아버지 일제 신한평 같은 명화가가 탄생한 것이다. 해원은 풍속화가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해원 신윤복은 산수(山水)와 인물산수(人物山水), 인물(人物)과 신선(神仙) 및 고사(古事), 화조(花鳥)와 영모(翎毛), 풍속(風俗) 등 조선시대 회화의 거의 전 분야에서 창작하였다. 해원의 그림에서 여성은 가장 큰 주제였다. 조선시대 전 사회 각 계층의 여성을 이렇게 골고루 잘 그린 화가는, 전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해원 신윤복이 유일하다. 조선시대에 광주이씨 가문의 여성들은 훌륭한 혼처(婚處)로서 선호(選好)되었다. 그러므로 안협공의 묘소 옆에 소실이었음에도 설단묘를 만들어 모신 것이 아니겠는가?

— 李亮載 (좌의정공파)



정부인 광주이씨 지단

알리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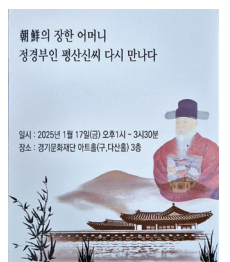
정경부인 평산신씨 학술발표회

조선의 장한 어머니 중의 한 분이신 송덕재(휘 윤경)과 동고(휘 준경)의 모친 정경부인 평산신씨 학술발표회가 정재공연합총회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2025년 1월 17일 13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

문화재단 3층 아트홀(구 다산홀)에서 개최된다. 평산신씨는 문경공(諱 克塽)의 손부(孫婦)이고, 광양군(諱 世佐)의 며느리이며, 흥문관 수찬 증영의정 정재공(諱 守貞)의 부인이다. 학술발표회를 통해서 평산신씨의 삶

과 생애, 모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되새기는 좋은 시간에는, 많은 종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 정재공연합총회기념사업회 회장 이경수



평산신씨 학술발표회

강동둔촌백일장 수상작

● 일반부 장원(산문)

들꽃

임성원 (경기도 남양주시)

법당 마루에 앉아 올라오는 승용차를 바라봤다. 승용차는 먼지바람을 일으켜 주위를 뿌옇게 만들었다. 마당 한쪽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서너 명 내렸다. 오늘 사진 동아리에서 온다고 했지. 문득 스님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학생들은 저마다 손바닥으로 그늘을 만들었다. 며칠 전에 들어온 과일주스라도 손에 쥐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냉장고에서 꺼낸 과일주스를 바구니에 담았다. 사랑방에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당으로 나오자 학생들은 휴대폰과 작은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녔다. 나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과일주스를 건넸다. 밝은 목소리로 감사하다며 받아 가는 모습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단발머리를 한 여학생이 내게 물었다.

“이곳에서 지내는 분이세요?”

“응, 잠시.”

나는 그 물음에 짧게 대답했다. 절에서 지내다 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물었다. 젊은 처자가 이곳에서 지내는 이유가 뭐냐고. 그럼 이렇게 답했다. 인연이

있나 봐요. 능청스러운 웃음까지 지어주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내가 이 절에 머물게 된 지도 두 달이 넘었다. 겨울 막바지에 도망치듯 이 절에 찾아왔다. 무작정 스님과 마주 보고 앉아 머물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스님은 잠시 침묵을 잇다가 대답했다.

“인연이겠거늘. 지내셔도 좋습니다.”

스님의 대답은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종종 떠올랐다.

나는 학생들과 스물 토크를 나누며 사진 찍는 걸 구경했다. 스님이 마련한 텃밭에 단발머리 여학생이 서성이고 있었다. 저 텃밭은 당장 심어둔 게 없을 텐데. 멀리서나마 흐릿하게 보이는 건 거친 흙과 무성히 자란 잡초뿐이었다. 뒤에서 여자가 큰 목소리로 학생들을 불렀다. 동아리 이름을 외친 여자는 학생들의 담당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나와 비슷한 포레로 느껴졌으나 훨씬 엷되어 보였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 같은 직종에 있던 탓에 뚜렷한 이미지를 보면 연차 가늠을 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둘러 쌓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다. 시선을 쉽게 땔 수 없었다. 학교에 두고 온 내 제자들 얼굴이 눈앞에 선명했다.

학교에 휴직계를 낸 건 요양이 필요해서였다. 국립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설렘으로 가득했다. 고학년 학생들이 만큼 대화가 잘 통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시달린 건 학생이 아닌

학부모였다. 자습 시간에 아이돌 노래를 틀어 주었다는 걸 알게 된 학부모는 내게 장문의 메시지와 파일을 보냈다. 아이들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노래라는 말과 가사에 붉은 펜으로 표시한 것까지. 처음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 학부모는 SNS 계정을 찾아 연락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진과 아이에게 신경을 써 주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점차 쌓여갔다. 학기 초에 계획한 활동이 줄었고 교과서 위주의 정적인 수업만 진행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오는 연락은 정신을 갇아먹었다. 숨이 턱 막혀 수업을 다급히 마무리 짓는 날이 늘어갔다. 절로 도망치듯 온 것도 사람에게 시달리는 걸 피하기 위함이었다.

학생들이 막 떠났을 때 여학생이 주위를 맴돈 텃밭이 떠올랐다. 텃밭에 가까이 다가가자 잡초에 가려져 있던 들꽃이 무성하게 피어 있었다. 뒤에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발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들꽃이군요.”

스님은 내 곁에 다가와 텃밭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관리도 하지 않은 곳에서 자란 들꽃.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저리 곧게 자랄 수 있었을까. 한참 바라보자 스님이 나직이 말했다.

“척박한 환경에서 피어난 게 꼭 희망 같지요”

그 말이 귓가에 웅웅 울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 청소년부 장원(운문)

달팽이의 귀갓길

진해은 (안양예술고등학교 2)

비가 오면 늦어지는 귀갓길
아버지들의 고단함은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혼자 남은 우산의 마음으로 나는
아홉 시 뉴스가 끝나기도 전에 집을 나선다

젖은 앞사귀의 뒷면 같은 골목길에서

수목화로 번진 아버지, 저만치서 홀홀
걸음걸이를 잔뜩 풀어헤친 채
익숙한 유행가 휘파람으로 날린다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에
아버지의 더듬이는 움짇 숨어버리지만
아버지의 반투명한 몸은 오늘 하루를 그대로 내비친다

내 키를 재는 눈대중에 실린 한 올의 감탄과
내 어깨를 감싸는 선물집의 냄새 그리고
뒤늦게 전해지는 끈적한 점액질

아버지는 거칠고 모난 길들을 다 지나고
칼날의 경사에도 달라붙어야 했을 것이다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며
등짐 진 아버지의 다짐들은 빗물처럼 점점 불어나
등골에 새겨져 더욱 단단해졌다
밤새 풀리지 않는 근육통처럼

달팽이를 검지 손가락에 싣는다
달팽이의 짐을 나눠 들고 간다
깜빡거리는 가로등 밑에서
맞잡은 손을 앞뒤로 흔들며 더듬더듬

짙어진 것들의 늦은 안부를 묻는
빗물에 젖은 달팽이들 여기저기
밤의 골목길을 빛내며 간다

● 초등부 장원(산문)

나의 어릴적의 추억 ‘텃밭’

오세영 (서울선사초등학교 6)

내가 유치원을 다닐 때 우리 유치원 앞에는 사람들이 농작물을 키울 수 있게 만든 ‘텃밭’이 있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와 형이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게 그 텃밭에 농작물을 키우자고 하셨다. 나는 그때 당시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재밌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가족은 씨앗을 사서 텃밭에 심었다. 그런데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영상을 보고 열심히

키웠다. 매일 유치원이 끝나고 찾아가서
“얼른얼른 자라렴.”
“사랑해~.”

같은 말을 하고 물도 주었다. 그러자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듯 점점 커져가는게 눈에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우와! 엄마 당근이 엄청 엄청 커졌어요!”

라고 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니 엄마가 활짝 웃으셨다.

그렇게 점점 수확의 날이 다가왔다. 그동안 매우 재미있었지만 계속 가야 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다. 그래도 식물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그동안 많은 곤충들과 있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매일 텃밭에 심

글병글하게 가서 까르륵 까르륵 웃으니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제는 드디어 수확을 할 때였다.

‘우리 당근도 시장에서 파는 당근처럼 큼지막하고 예쁘게 나올까?’

하는 기대를 가슴에 품고 당근을 잡고 뽑았다! 하지만 내 기대와는 달리 내 손가락 크기의 당근이 나왔는데 모양도 울퉁불퉁하니 우스꽝스러웠다. 엄마께서는 우리 당근은 친환경적으로 키워서 작지만 시장 당근 보다는 몸에 좋다고 말하셨다. 나는

“친환경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았더니 엄마께서

“벌레를 잡고 농작물을 크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약을 사용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하셨다. 나는 조금 속상했지만 그래도 내가 처음으로 키운 당근이라 너무 뿌듯했다.

지금 6학년도 실과시간에 <나만의 텃밭 가꾸기>라

는 단원이 있어서 상추,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중인데 문득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라 기분이 좋았다.

사춘기가 다가와서 평소에 엄마에게 짜증을 많이 내서 엄마가 슬퍼 보였는데 어릴 적의 텃밭 얘기를 꺼

내니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

하고 웃으셨다. 엄마가 웃으니 나도 웃었다.

“텃밭아 내게 좋은 추억 만들어 줘서 고마워~!”

● 일반부 차상(산문)

찾아 나선 길

백정훈 (서울시 송파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운동화부터 갈아신고 길을 나선다. 운동을 하겠다는 표면적 목적 이외에도 내겐 꼭 필요한 낯선 길을 찾아 두리번거리야 하는 힐링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이다.

나는 태어나기를 개인주의자로 태어났다. 가족보다는 내 개인의 만족과 삶이 늘 우선이었다. 함께 여행을 가야 할 상황에서도 그 여행이 내가 원치않는 여행이라면, 눈감고 따라가는 동생들과는 달리 부모님께 내 일정을 알리고 집에 머무는 걸 선택했다. 다행히 부모님은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해주시는 분들이었고, 그때부터 나는 내 선택에 책임 또한 있음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명도 아닌, 세 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원하는 일보다 아이들이 원하는 일, 아이들의 선택과 취향에 따라 일상이 채워져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렇다고, 그러니 유난쩍지 말라고 스스로를 다독인 적도 많았다. 하지만 본성과 양육과정에서 심

화되어버린 내 내면을 무한정 내리 누르고 살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유모차를 밀고 일단 밖으로 나갔다. 어느새 잠든 아이를 보면서, 그제야 자유로워진 기분이 되어 거리를 걸었다. 걷다 보면 생전 처음 가는 골목길로 들어설 때도 많았다. ‘저 집에는 지난겨울을 잘 견디고 핀 튤립이 예쁘네!’, ‘어머, 저 집에는 담 너머에 나무들이 많은가 보다. 작은 새 소리가 저렇게 예쁜 소리를 내는 걸 보면...’ 이렇게 골목을 지나면서 구경하고 생각하며 해마다 보면 점점 더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아주 오래전, 스무 살 즈음의 나와도 마주하게 되었다.

고민이 많았던 젊은 날의 나는 머리가 아프도록 한 가지 생각에 골몰할 때가 많았다.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부터 시작해서 ‘잘 산다는 건 뭘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에 이르기까지 쉽게 답을 얻을 수 없는 삶의 난제들 앞에서 청춘 특유의 성급함으로 인해 ‘내 기필코 답을 찾고야 말겠다’ 는 오기를 앞세워 번뇌의 시간을 보낼 때도 많았다. 그러다 머리가 아프면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때론 혼자서, 때론 친구와 약속해 종로 거리며, 대학로 일대를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걷다 보면 해가 저물고 집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 되었다. 고민에 대한 답을 어렵듯이 알게될 때도 있었지만, 대

부분은 미완이었어도 그 걷는 과정이 숨막히는 나를 살려냈음을, 청춘의 시간을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삶의 물음들 역시 ‘정답’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고자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럴 듯한 답안지를 주관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잘 헤맬 수 있는 사람만이 더 잘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나만의 길,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잘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이 골목길에서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저 골목길에서 저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눈여겨 보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집 골목길과 우리집 사람들을 돌아보고 조금더 꼼꼼히, 조금 더 다정하게 내 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맘껏 길을 잃어야겠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 밀린 집안일이 나를 붙잡더라도, 나는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선다. 아직도 채우지 못한 삶의 문제들을 챙겨서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나를 이끌고 걸어간다. 때론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때론 따뜻한 햇빛이 골목길 너머를 밝게 비추며 걷고 있는 나를 힘껏 응원해주고 있음을 느낀다. 더 빨리 길을 잃고 더 빨리 길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내 그림자마저 힘차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 청소년부 차상(산문)

골목길 속 빛나는 별

김시아 (동주여자중학교 3)

“우울증입니다.”

그렇게 병원 가서 들은 한마디. 내가 우울증이라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딱 꽂혔다.

슬쩍, 고개를 돌려 엄마를 보았다. 언제나 조각 같던 그 얼굴이,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곧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운다. 엄마가 운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를 감추려고 입을 막으며, 몸을 움츠리며, 엄마가 운다.

잠시 후 나의 볼 위로 무언가가 흐른다. 눈물이다. 나는 무엇 때문에 우는가. 학교 폭력을 받은 날들이 떠올라서? 그로 인해 우울증을 선고받아서? 아아, 아니다. 엄마 때문이다. 우는 엄마 때문에. 항상 내 앞에서는 웃는 얼굴만 보여주었던 엄마가 내 눈앞에서 우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서. 우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서...

나는 밝은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을 뛰쳐나갔다. 나는 밖으로 나와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왜 달리는지 모른다. 그냥 달린다. 뒤에서 엄마가 따라오는 것 같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달

린다.

한참을 달리던 나의 다리가 갑자기 딱 멈췄다. 나는 헉헉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대체 얼마나 땀 흘려. 심장이 빠르게 쿵쿵쿵 뛰고 있다.

그렇게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는 내 눈에 한 으스스한 골목길이 들어왔다. 빛하나 없는 저 어두운 골목길이 마치 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벅저벅, 나의 발은 또 다른 나인 그 골목길로 향하고 있었다.

그렇게 골목길에 들어간 나는 차가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울었다. 어린아이가 되어, 소리내어 펄펄 울었다.

한참을 울고 있던 그때, 누군가 골목길로 들어왔다. 나는 누가 오거나 말거나 신경쓰지 않고 계속 울었다.

‘그 사람’ 은 내 오른쪽으로 다가와 나처럼 쭈그려 앉더니 내 왼쪽 어깨를 토닥여주기 시작했다. 난 알 수 있었다. ‘그 사람’ 이 나의 엄마라는 것을.

곧 진정이 된 나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역시 엄마였다.

나와 눈이 마주친 엄마는 아무말 없이 나를 껴안아주었다.

엄마의 온기가 너무 따뜻해서였을까. 나는 또 왈칵 눈물을 쏟았다. 울면서 나는 나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들을 쏟아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울어서, 나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하는 게 미안하고 슬퍼서 눈물이 났다고. 빛이 되어, 주위 사람들을 밝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한 번도

되지 못했다고. 있는 힘껏 말했다.

나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엄마가 나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우리 별이가 잘 모르나 보네.”

엄마가 싱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

“‘별’ 이라는 이름은 네가 태어나고 지었어. 고통에 눈앞이 캄캄해졌을 때, 갑자기 엄청나게 밝은 빛이 보였단다. 마치 별 같았어. 스스로 밝게 빛나는 별. 울음소리도 어찌나 크던지.”

나는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설마...?”

엄마가 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맞아. 그게 너란다. 우리 별이.”

나는 놀라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 내 이름, 별.

그 때, 엄마가 우리가 있는 골목길을 신기하다는 눈으로 보며 말했다.

“별아, 네 태몽이 뭐 줄 알아? 이런 어두운 골목길에서 빛나던 작은 별이 엄마에게 오는 거였어. 신기하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엄마를 와락 껴안았다. 엄마도 나를 또 껴안았다.

“있잖아, 별아. 너 태어나고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엄마를 밝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었단다. 그러니까, 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사람이야.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빛나는, 우리 별이.”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2024년 12월 구독 및 찬조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종상	10,000	서울 서대문	이종식	10,000	서울 동대문	이용대	10,000	대구 중구
이용철	10,000	경기 시흥	이종욱	10,000	경기 동두천	이석래	10,000	대구 남구
이종현	30,000	서울 성북	이종익	10,000	서울 도봉	이재래	10,000	대구 수성
이대환	10,000	부산 사상	이종찬	10,000	경기 동두천	이희재	10,000	대구 수성
이헌래	20,000	광주 북구	이종철	10,000	서울 성동	이용균	10,000	대구 남구
이수현	10,000	서울 도봉	이종호	10,000	서울 은평	이용화	10,000	대구 동구
이봉재	10,000	경북 구미	이종훈	10,000	경기 동두천	이진재	10,000	대구 달성
이정실	10,000	서울 마포	이춘재	10,000	경기 동두천	이경재	10,000	울산 남구
이공수	20,000	전북 고창	사인공파종회 10,000x51=510,000			이상재	10,000	부산 해운대
이정수	10,000	경기 군포	이익래	10,000	부산 연제	이태재	10,000	경북 경산
이수강	100,000	경기 성남	이용달	10,000	부산 서구	이상훈	10,000	대구 북구
이필래	10,000	전남 화순	이용문	10,000	부산 사하	이기재	10,000	경기 용인
이종현	10,000	경기 양평	이용대	10,000	부산 서구	이권재	10,000	경남 창원
이근영	10,000	강원 횡성	이상래	10,000	부산 동래	이용수	10,000	경남 마산
이종태	10,000	경북 안동	이용해	10,000	부산 부산진구	이용갑	10,000	대구 달서
이창수	10,000	서울 강동	이용덕	10,000	경남 창원	광릉부원군파종회 10,000x28=280,000		
이정봉	10,000	경남 사천	이양래	10,000	경남 창원	이주영	10,000	경기 광주
이경수	10,000	인천 남동	이용훈	10,000	경남 창원	이종길	10,000	경기 광주
이용관	10,000	경기 화성	이용문	10,000	경남 창원	이철수	10,000	경기 광주
이종익	10,000	경기 수원	이용익	10,000	경남 울산	이종택	10,000	경기 광주
충민공파종회 10,000x16=160,000			이용관	10,000	인천 미추홀	이종수	10,000	경기 광주
이종삼	10,000	경기 성남	이용발	10,000	경기 고양	이주동	10,000	경기 광주
이종목	10,000	경기 성남	이윤태	10,000	경기 고양	이화준	10,000	경기 광주
이태수	10,000	경기 하남	이종철	10,000	경기 파주	이주찬	10,000	경기 광주
이용만	10,000	경기 성남	이한재	10,000	서울 송파	이만수	10,000	경기 광주
이종근	10,000	경기 시흥	이종우	10,000	경기 군포	이주석	10,000	경기 광주
이찬수	10,000	경기 성남	이용현	10,000	경남 창원	이엄수	10,000	경기 광주
이정수	10,000	서울 송파	이춘우	10,000	경남 창원	이주흥	10,000	경기 광주
이동수	10,000	경기 성남	이용술	10,000	경남 창원	이주송	10,000	경기 부천
이종태	10,000	성남 분당	이용백	10,000	경북 고령	이주일	10,000	경기 남양주
이경재	10,000	경기 성남	이춘지	10,000	대구 달성	이주철	10,000	서울 성북
이우재	10,000	서울 송파	이용희	10,000	대구 달성	이주섭	10,000	경기 의왕
이용배	10,000	경기 성남	이용태	10,000	경남 창원	이지수	10,000	경기 광주
이종명	10,000	서울 광진	이종호	10,000	대구 달성	이성수	10,000	충북 청주
이용호	10,000	성남 중원	이학재	10,000	대구 달성	이종희	10,000	경기 광주
이종태	10,000	경기 고양	이용우	10,000	대구 달서	이상호	10,000	경기 광주
이금수	10,000	성남 분당	이윤재	10,000	대구 수성	이상수	10,000	충북 청주
동두천화수회 10,000x15=150,000			이광재	10,000	대구 수성	이주형	10,000	경기 부천
이경재	10,000	경기 동두천	이용준	10,000	대구 남구	이필수	10,000	경기 광주
이성재	10,000	경기 동두천	이천재	10,000	경남 창원	이주신	10,000	경기 성남
이육재	10,000	경기 동두천	이원복	10,000	대구 달서	이명수	10,000	인천 미추홀
이윤재	10,000	경기 동두천	이용환	10,000	대구 서구	이용희	10,000	경기 광주
이익재	10,000	경기 동두천	이용철	10,000	대구 달서	이응수	10,000	경기 용인
이정재	10,000	경기 동두천	이용탁	10,000	경북 구미	이일수	10,000	경기 광주
이종국	10,000	경기 동두천	이용주	10,000	대구 수성			

▶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봐주십시오.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만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농협은행 : 301-0290-6787-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동명이인이 많으니
성명과 지역을 적어 보내시거나 (예 : 홍길동 서울 또는 홍길동 종로)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5年 1月 1日

<제406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이 주 영

編輯人 : 이 용 두

主 幹 : 이 주 병

發行處 : 광주이씨대종회

www.gwanglee.or.kr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길 31-8, 광릉빌딩 501호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1720@nate.com